

크리에이터 14인 “1박2일 해군, 명 받았습니다”

해군, 군 체험 숏폼 90여 편 오늘 공개
세얼간이·티니 등 합정 편승·훈련 참여

인기 크리에이터 14명이 해군 장병들과 생활하며 군 생활을 체험하는 모습을 담은 숏폼 영상 90여 편이 5일 공개된다.

해군은 4일 “민간 온라인 숏폼 콘텐츠 전문 기업 윗유와 협업한 ‘네이비 윗유(NAVY-witU)’ 프로젝트 콘텐츠를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SNS 플랫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한 크리에이터는 세얼간이, 장꾸커플, 쉐리, 조담발, 티니,

강현이여라, 임뽕뽕, 람누끼, 혜찌, 김켈리, 차아정 등 11개 채널 14명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숏폼 콘텐츠로 해군의 사명과 장병들의 일상을 국민에게 친근하게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윗유는 해군병 출신 차재승 대표가 운영하는 온라인 숏폼 콘텐츠 전문기업이다. 차대표는 숏폼 콘텐츠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윗유행’ 프로젝트를 진행 중으로, 해군에 협업을 제안하면서 이번 콘텐츠들이 제작됐다.

지난달 6~7일 해군1함대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는 크리에이터들이 △해군 합정 편승 △항해 중 전투배치 및 해상 생활



9월 5일 해군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는 'Navy-witU' 협업 프로젝트 콘텐츠의 섬네일 이미지. 해군 제공

련 △취사 및 점호 참여 △장병 대상 이벤트 및 위문품 증정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이들은 1박2일 동안 현역 장병들과 생활

하며 체험한 내용으로 90여 편의 숏폼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콘텐츠는 5일부터 크리에이터의 SNS(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채널에 순차적으로 게시될 예정이다.

해군은 이번 프로젝트의 제작 과정 전반을 담은 영상을 5일 유튜브 등 해군 공식 SNS채널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주관한 황상근(대령) 해군본부 병영정책과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해군이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조직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도”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해군이 조명되고 나아가 장병들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성공·안전 두 토끼 잡는다”

이달 광주서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
육군31보병사단, 대테러 태세 점검

육군31보병사단은 4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사단 대테러 작전부대 출동태세를 최종 점검하고 지원체계를 완비했다”고 밝혔다.

사단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서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22일부터 28일까지는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가 각각 열린다.

대회 기간 120여 개국에서 11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며 경기가 열리는 광주국제양궁장, 5·18민주광장을 비롯해 시내 곳곳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단은 테러를 비롯해 대회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5분전투대기부대, 군사경찰특임대, 화생방대테러특수임무대(CRST), 위험성폭발물개척팀(EHCT) 등을 유사시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실을 가동한다. 사단은 경



육군31보병사단 군사경찰특임대 장병들이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출동태세를 최종 점검하고 있다.

부대 제공

찰·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우발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토록 출동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지난달 20일에는 광주경찰청, 광주119특수대응단

등과 광주월드컵경기장 일대에서 합동 대테러 훈련도 실시했다.

홍기양(중령) 군사경찰대대장은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는 행사인 만큼 테러 대

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대가 보유한 대테러 역량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

가족·친구 뜨거운 박수 받으며...정예 해병 1052명 첫발

해병대교훈단 신병 1320기 수료식
‘3대 해병’ 다섯 명 탄생, 전통 이어가

해병대교육훈련단(교훈단)은 4일 행사연병장에서 신병 1320기 수료식을 개최하고 1052명의 정예 해병을 배출했다.

수료식에는 미 해병대 무적캠프 부대장, 포항시 해병대전우회, 부대 주요 지휘관 및 참모, 주임원사단과 수료자 가족·지인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신병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지난 7월 28일 입영한 1320기 신병들은 6주 동안 군사기초훈련과 해병대 특성화 훈련 등 강도 높은 훈련 과정을 이겨냈다.

특히 부대는 8월 무더위 속 훈련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복장을 변경하며 훈련병들의 건강을 밀착 관리했다. 45인승 대



해병대교육훈련단이 4일 개최한 신병 1320기 수료식에서 가족과 수료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신병의 모습 (왼쪽)과 수료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이홍섭 상사

형버스를 개조한 회복버스를 야외훈련장에 배치하는 등 온열환자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장소와 시간을 확보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훈련 성과를 높였다.

신병들은 극기주와 전자봉 고지 정복을 완수하며 투철한 해병대 정신과 끈끈한 전우애를 체득했다. 수료식에서 빨간명찰을 받은 신병들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라는 가치를 가슴 깊이 새겼다.

수료식은 애국가 제창, 수료선서, 해병 자격 선포, 해병의 긍지 제창, 교육과정 우수자 상장 수여, 훈련기 반납 순으로 진행됐다. 해병 자격을 선포받은 1320기 신병들이 ‘해병의 긍지’를 우렁차게 제창하자 가족과 지인들은 전국 각지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나갈 자랑스러운 해병들을 향

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응원했다.

이종문(준장) 교훈단장은 “1320기 신병들은 가족들의 응원과 사랑을 바탕으로 6주간의 교육훈련을 완수했다”며 “전우에 대한 믿음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실무 생활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수료식에는 ‘3대 해병’ 다섯 명이 탄생해 해병대 전통과 자부심을 이어갔다. 김해민 이병의 할아버지는 병 182기로 입대해 베트남전쟁 당시 짜빈동전투에 참전했으며, 아버지는 병 795기로 해병대 상륙지원단(현 해병대군수단)에서 복무했다. 김이병은 “매사에 올바르게 강인한 해병대 정신을 동경하며 자랐다”며 “3대 해병이라는 자부심으로 실무 부대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수연 기자